

교류분석 이론에 의한 중·고등학생 자아상태 검사 개발 및 타당화*

박 원 모[†]

천 성 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정은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최종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검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기에 검사,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를 이루는 5개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의 5요인 모형이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되며,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를 보면 5개의 하위요인 모두 .80을 넘고 있어 신뢰로운 척도로 생각된다. 자아상태 검사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자기에 검사,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류분석 이론에 근거한 자아상태 검사가 Berne이 고안한 자아상태의 하위요인 5가지를 잘 측정하는 타당한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교류분석, 자아상태, 자기에 검사, 충동성 검사

* 본 연구는 박원모(2008)의 박사학위논문 ‘교류분석 이론에 의한 중·고등학생 자아상태 검사 개발 및 타당화’에서 일부를 발췌함.

[†] 교신저자 : 박원모, 한국학교상담연구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202-1904

Tel : 017-593-1932, E-mail : greegmth@hanmail.net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는 삶의 과정 그 자체로서, 이들은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발달시키게 된다(Harris, 1975; Rogers, 1961; Sullivan, 1953).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이해, 타인이해, 나아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Berne, 1961). 즉,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기 성격상의 불균형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원활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데(杉田峰康, 1989), 자신의 자아상태 구조와 심적 에너지의 양과 형태를 알 수 있다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자아상태는 사람의 나이, 발달 단계, 생활 상황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태를 관찰했을 때 삶의 방식이나 앓고 있는 병에 따라 공통적인 타입이 나타난다(杉田峰康, 1988). 예를 들면 자아상태 검사에서 CP(Critical Parent), A(Adult), AC(Adapted Child)가 높고 NP(Nurturing Parent), FC(Free Child)가 낮으면 우울하거나 위궤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이도영, 김남옥, 추석호, 이수연, 김규식, 2005). 이와 같이 심신증 환자의 자아상태, 비행청소년의 자아상태, 성인 범죄자의 자아상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자아상태 등은 정상인의 자아상태와 다른 모양을 나타낸다(우재현, 2006; 杉田峰康, 1988; Dusay, 1977).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아상태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지,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병을 앓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자아상태를 함께 조사해서 양쪽 자아상태의 유사점이나 상이점을 관찰한다면 커플들이 서로 교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커플 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법 또한 모색할 수 있다(Dusay, 1977).

그런데 인간의 자아상태를 최초로 5가지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Berne은 자아상태를 파악할 때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Berne은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내담자들을 상대하면서 내담자들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Stewart, 1989), 일반인들의 경우 Berne처럼 자신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개발이 필요하다.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체감 형성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우재현, 1994; 이병래, 1996; 제석봉, 2002; 吉内一浩, 山中學, 佐々木直(2000); Brennan & McClenagh, 1978; Dusay, 1972; Loffredo, Harrington & Okech, 2002; Loffredo, Harrington, Munoz, & Knowles, 2004; Loffredo & Omizo, 1997; Williams &

Williams, 1980). 이들 중 가장 먼저 자아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한 사람은 Dusay (1972)로서, 그는 인간의 심적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이고그램(egogram)을 만들었다. Dusay 이후에도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거나(우재현, 1994; 제석봉, 2002),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할 수 없고(Brennan & McClenagh, 1978),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뢰도 계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Williams & Williams, 1980).

이에 비하여 Loffredo 등(2002)은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아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일부 요인의 문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자아상태 검사 개정판(The Ego State Questionnaire-Revised: ESQ-R) (Loffredo et al., 2004)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요인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김진미, 2006; 송현중, 1998; 이병래, 1996) 이들 연구 역시 요인분석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송현중, 1998),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진미, 2006; 송현중, 1998; 이병래, 1996).

일본에서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자아상태 검사 신판 TEG(Tokyo University Egogram)를 개발하였으며(吉内一浩 외, 2000), 자아상태 검사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吉内一浩 외, 1995; 大島京子 외,

1996; 柏木繁男, 1999; 佐々木直 외, 2000). 또한 신판 TEG의 요인구조를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平石徳己, 2000).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아상태 검사가 임상장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吉内一浩 외(1995) 처럼 TEG 2판과 코넬의학지수(Cornell Medical Index), 기분상태 프로파일(Profile of Mood States), 우울검사(Self-rating Depression Scale)와의 관계를 통하여 TEG의 타당도를 확인한다든지, 大島京子 외(1996)처럼 정상인과 환자들의 자아상태 프로파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연구들 통하여 TEG 2판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자아상태 검사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자아상태를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요인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아상태의 각 하위영역들이 Berne(1964)이 제안한 자아상태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유일한 척도인 우재현(1992)의 검사의 경우에도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거나 타당화를 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인들이 잘 묶여지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에 의하여 측정한 자아상태와 자기애(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검사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화를 위하여 자아상태 검사와 자기에 검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아상태와 자기에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에 이산화된 부모상이 내면화된 것으로 (Kohut, 1976), 자아상태의 하위요인 중에서 어머니 자아상태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어머니 자아상태는 부모나 형제, 그 외에도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러한 분들의 가르침대로 살거나, 그분들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을 모방하여 따라 할 때, 우리는 'P(Parent) 자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P 자아상태 중에서도 CP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만을 바른 것으로 여기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1인자라는 식이다(Bruno, 1983). 따라서 이산화된 부모상이 내면화된 자기에와 자아상태에서의 P는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부모의 윤리, 도덕, 가치판단의 기준이 그대로 내면화된 CP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NPI는 자기에의 극단적인 모습보다는 보다 온건한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자기에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Raskin & Terry, 1988). 그래서 많은 연구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원희, 2001; 이윤조, 2002; 한수정, 1999; 정남운, 2001; 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Rhodewalt & Eddings, 2002)에서 자기에가 자존감과 정적 관련성을 보여 자기에적 성격성향자들이 외현적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김경희, 김숙영, 2003; 서미애, 1997; 이지영, 1998; 정광하, 이정숙, 1999; 정정심, 2000)에서 NP와 A가 높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특히 A가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아 안정되고 바람직한 성격적 특징을 가짐으로 해서 인간관계도 원만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자아상태와 자기에간에 상관이 있으며, 특히 자아상태의 하위요인 중에서 A가 높을수록 자기에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자아상태 검사와 충동성 검사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충동을 내부에서 부단히 흘러나오는 힘 또는 에네르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내면의 욕망은 힘이요, 에너지다. 리비도는 사랑 에너지이다. 그 힘이 충동을 일으키고 그 충동을 억압하면서 무의식이 이루어진다. 프로이드는 충동을 심리 이전의 순수 에너지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충동 또는 본능은 심리 이전의 생물현상을 가리킨다(양명수, 1997). 그러므로 충동은 쾌락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 즉 이성적 요소가 배제된 본능적 활동이므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자아 중에서 이드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자아상태의 성격구조모델과 프로이드의 성격구조모델은 유사한 점이 많다(우재현, 2006). P 자아상태는 관찰하고, 명령하고, 바로잡고, 위협하는 판단적인 초자아와 비슷하며, A 자아상태는 현실을 검토하는 자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또 C 자아상태는 검열 받지 않은 본능과 충동의 근거지인 이드(id)와 유사하다(우재현, 2006).

그리고 교류분석 이론에서의 어린이 자아는 인간 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그리고 5세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 양식이 내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자아는 프로이드의 이드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어린 시절의 흔적을 저장해 놓은 곳이다(제석봉, 2002). P 자아상태가 부모나 권위적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면, C(Child)는 감정, 경험 및 적응의 내부 세계를 가리킨다.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런 충동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사람들의 반응과 자기가 처해 있었던 위치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표현하는 자아상태이다. 이 같은 어린이 자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연장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가 충동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개발되는 자아상태 검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아상태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지,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과정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

아상태 검사들을 살펴보면 김진미(2006), 송현중(1998), 이병래(1996), Loffredo 등(2004)은 요인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으나, 다른 자아상태 검사들은 요인분석을 거치지 않고 개발되어서 하위요인들이 5개의 구성개념으로 수렴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Loffredo 등(2004)이 요인분석 방법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예비연구인 Loffredo 등(2002)에서는 검사 문항들이 5개의 하위요인들로 잘 묶이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Loffredo 등(2004)은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는데 Loffredo 등(2002)과 Loffredo 등(2004)의 두 번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요인분석을 한 번만 실시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한다면 Loffredo 등(2002)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FC나 CP에 속하는 문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등 자아상태가 5개의 하위요인들로 수렴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할 때 요인분석을 한 번만 실시한 후 검사를 개발하기보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한 다면 각 단계별로 문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5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4차에 걸친 과정을 거쳐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다.

1차 예비검사 개발(250문항)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아상태가 실제생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실제적인 면을 고려하기보다 Berne(1966)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상태의 5가지 하위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를 바

당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자아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를 감정과 사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 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Berne, 1964)으로 정의한다. 자아상태는 아버지(Parent: P), 어른(Adult: A), 어린이(Child: C) 세 가지 자아상태 구조가 있으며, 이를 기능에 따라 비판적 아버지(Critical Parent: CP), 양육적 아버지(Nurturing Parent: NP), 어른(Adult),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 순응적인 어린이(Adapted Child: AC) 다섯 가지로 구분한 자아상태 모델을 말한다.

Berne은 인간의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적, 사회적, 역사적, 현상학적 진단이라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적 진단이다. 행동적 진단에는 말(언어), 소리의 어조, 태도(몸짓), 자세, 표정 등이 포함되는데 행동적 진단 한 가지로 인간의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행동적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석봉,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 자아상태의 특성 중에서 주로 행동적 진단에 속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는 김규수, 류태보(1998), 우재현(1992, 1994, 2006), 이병래(1996), 제석봉(2002), 杉田峰康(1988), Dusay(1977), Stewart(1989)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자아상태의 각 기능별 특성은 부록 1에서 보는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록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능별 특성을 문항으로 구현하였다.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거나, Berne의 이론에 근거

한 자아상태 기능별 특성을 참고하여 새로이 만든 문항을 모두 합쳐서 각 요인별로 60문항씩 총 300문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300문항을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소지한 3명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문항 검토에 참여한 3명은 모두 상담 경력 10년 이상이며, 학교 상담사, 집단상담사 등의 상담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씩 소지한 사람들로 문항 검토 이전에 교류분석 이론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문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문항 검토 결과 자아상태 검사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 50문항을 제외한 250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250문항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3명의 국어교사로부터 점검을 받아 문항 15개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그런 후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2문항의 표현을 보다 쉽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250문항의 예비검사가 완성되었다.

2차 예비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에 소재한 5개의 지역교육청 중에서 3개의 지역교육청에 소재한 6개의 중학교와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3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 100부씩 총 1,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121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48부를 제외한 1,07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예비검사 개발(100문항) 결과

자아상태 검사의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

인하기 위하여 1,073명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점수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가 5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5개의 요인들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인분석에서 회전방법을 사교회전(Direct Oblimin) 방식으로 지정하였으며,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예비검사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한 결과, $KMO=.8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08351.730(31125), $p<.001$ 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1998).

문항 추출을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하지 않은 문항 제거를 위한 기준은 첫째,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 둘째, 요인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상인 문항, 요인당 문항수를 맞추기 위해 해당되는 요인에 속하는 문항수가 더 많은 경우 요인부하량이 낮은 순으로 문항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성태제, 1998).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2개가 존재하였으나, Scree 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6개로 제한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더니 제 1요인의 경우 대부분 A에 해당되는 문항들로 분류되었으며, 제 2요인은 AC에 속하는 문항들이었고, 제 3요인은 CP, 제 4요인은 FC, 제 6요인은 NP에 속하는 문항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제 5요인의 경우에는 FC에 속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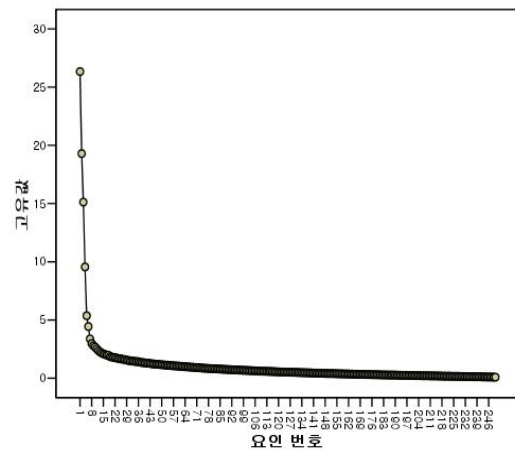


그림 1. 1차 예비검사의 Scree 검사

는 문항 4문항과 A에 속하는 문항 4문항, 그리고 CP에 속하는 문항 1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인부하량이 .30보다 작은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상인 문항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제 5요인에 속하는 문항 9개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남게 된 174개의 문항을 이번에는 5개의 요인으로 제한하여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30보다 작은 문항 14개와 요인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상인 문항 3개를 제외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7번 반복한 결과 AC 45문항, NP 29문항, CP 26문항, A 31문항, FC 6문항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자아상태 검사의 경우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상태 검사 TAG, TAOK을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각 요인별로 8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상태 검사 ESQ-R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검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자의 생각에는 5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를 10개로하여 총 50문항의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50개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두 배인 100개의 문항으로 2차 예비검사를 구성하여 이 검사를 바탕으로 최종 자아상태 검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수가 20개 이상 남은 요인들은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으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FC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6문항 밖에 남지 않아서 14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20문항 씩 총 100문항의 2차 예비 검사가 완성되었다.

3차 예비연구 대상

3차 예비검사 개발을 위하여 부산에 소재한 중학교 2개와 고등학교 2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 150부씩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95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588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 예비검사 개발(75문항) 결과

3차 예비검사 개발을 위하여 2차 예비검사 100문항에 대한 588명의 검사 점수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하지 않는 문항 제거를 위한 기준은 첫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 평균이 .20미만이거나 .40이상인 문항(김남걸, 2001), 둘째,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 셋째, 요인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30 이상인 문항이었다.

먼저 각 문항들의 평균이 2.0미만 이거나 4.0이상인 문항을 조사하였더니 5개였는데 이 문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남은 95문항으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으로 회전방식은 사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24개가 존재하였으나, Scree 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후의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수를 5개로 고정한 후 최대우도법으로 사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래 요인에 속하지 않고 다른 요인에 포함된 문항 2개와,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 18개를 삭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100문항 중 25문항이 제외되고 75문항이 남았다. 이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CP 12문항, NP 15문항, A 16문항, FC 14문항, AC 18문항이었다.

그런데 75문항을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하거나 간섭을 심하게 하는 편이다.’ 처럼 ‘~하는 편이다.’라고 기술된 문항이 모두 16문항이나 되어, 이들 문항을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하거나 간섭을 심하게 한다.’와 같은 형태로 고쳤다. 그리고 75문항 중에는 서로 비슷한 영역을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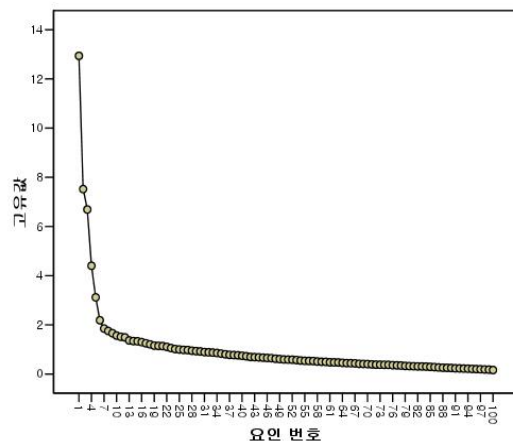


그림 2. 2차 예비척도의 Scree 검사

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항들을 모두 제거하고 남은 문항은 CP 12문항, NP 13문항, A 14문항, FC 13문항, AC 14문항이었다.

그런데 66문항을 검토해 볼 때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수가 다르고, CP, NP, FC의 경우에는 12문항, 13문항밖에 되지 않아서 최종 검사개발 과정에서 선정될 문항수가 10개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수를 15개로 같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에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 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 CP 3문항, NP 2문항, A 1문항, FC 2문항, AC 1문항을 추가하여 75문항으로 이루어진 3차 예비검사를 만들었다.

최종 검사개발 및 타당화 대상

최종 자아상태 검사 개발을 위하여 부산에 소재한 중학교 5개와 고등학교 5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3차 예비검사 각 100부씩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945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한 72부를 제외한 873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자아상태 검사

본 연구의 결과로 제작된 50문항의 검사로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기를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 그렇다, 5점: 아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반응 점수가 높을수록 피검자가 해당문항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애 검사

자기애 검사(NPI)는 Raskin과 Terry(1988)가 개발한 검사를 한수정(1999)이 변안한 것을 강유임(2002)이 NPI척도의 문장 이해도와 문항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30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선택에서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30점~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유임(2002)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특권의식 .55, 권력 .83, 우월성 .55, 자기찬미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특권의식 .56, 권력 .87, 우월성 .65, 자기찬미 .82로 나타났으며, 자기애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충동성 검사

충동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 판: BIS-II)는 Barratt(1959)이 개발하고 이현수(1992)가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3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충동성(cognitive impulsiveness), 운동 충동성(motor impulsiveness), 무계획 충동성(unplanning impulsiveness)의 3개의 하위 척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현수(1992)의 연구에서 충동성 검

사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인지 충동성 .57, 운동 충동성 .69, 무계획 충동성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지 충동성 .51, 운동 충동성 .69, 무계획 충동성 .59, 충동성 전체는 .79로 나타났다.

최종 자아상태 검사 개발 결과

문항 양호도 분석

자아상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검사점수에 따라 응답자의 총점을 상위 27%와 하위 27%로 나눈 후 문항별 반응 빈도가 상, 하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값과 Cramer's V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양호도 분석 결과 총점에 의한 상, 하위 두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p < .001$)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의 모든 문항들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최종적으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하지 않는 문항 제거를 위한 기준은 첫째,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양병화, 1998), 둘째,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점수 평균이 2.0미만이거나 4.0이상인 문항은 제외하였다(김남걸, 2001). 1차 요인분석과 2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3차 예비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독립성은 보장되었다고 생각되어 두 요인 이상에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은 포함하기로 하였다.

먼저 각 문항들의 평균이 .20보다 작거나 .40보다 큰 문항을 조사한 결과 CP에 속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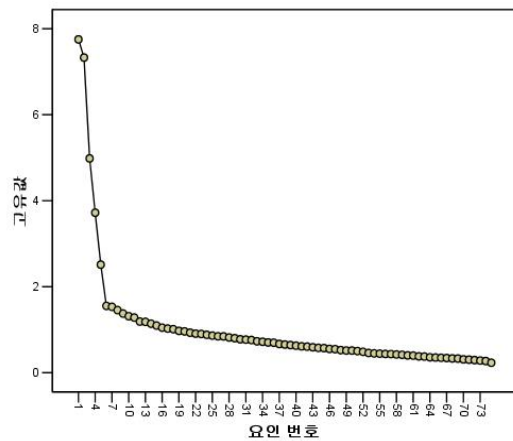


그림 3. 3차 예비척도의 Scree 검사

한 문항의 평균이 1.94로 2미만이어서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75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74문항으로 최대우도법으로 사교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18개가 존재하였으나, Scree 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한 결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후에 요인분석을 할 때는 5개의 요인으로 고정한 후 최대우도법으로 사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들은 모두 2차 예비검사 제작 때 포함되었던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자아상태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은 안정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조사하여 2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두 5문항을 제거하고 남은 70문항 중에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부터 차례로 선정하여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과 요인구조는 부록 2와

표 1. 자아상태 검사의 요인 간 상호 상관관계

	CP	NP	A	FC	AC
CP	-				
NP	.00	-			
A	.19	.39	-		
FC	.40	.07	.01	-	
AC	.10	-.02	-.12	.18	-

같다.

표 1은 자아상태 검사의 요인 간 상호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상태의 5개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P, NP, A, FC 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AC와 NP, AC와 A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P와 FC, NP와 A간의 상관관계가 .30을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은 .20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각 요인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표 2. 하위요인별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α)	M	SD
CP	.81	23.84	5.71
NP	.83	31.67	6.16
A	.82	29.50	6.52
FC	.80	30.73	6.76
AC	.86	27.34	7.32

.80을 넘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자아상태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5 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3. 자아상태 검사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	3568.75	1165	.805	.815	.049

표 3을 보면 검정하고자 하는 이론 모형의 지수가 CFI와 TLI의 경우에는 .90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RMSEA의 경우에는 .5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RMSEA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뢰구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모형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바람직한 지수로 알려져 있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RMSEA 지수가 .049이고 90% 신뢰구간이 .047에서 .050이면 좋은 적합도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자아상태 검사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화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기에 검사,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에 검사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와 자기에 검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표 4. 자아상태 검사와 자기에 검사와의 상관관계

	CP	NP	A	FC	AC
특권의식	.24***	.11**	.32***	.30***	-.12**
권력	.27***	.32***	.49***	.16***	-.45***
우월성	.21***	.26***	.36***	.15***	-.27***
자기찬미	.31***	.25***	.28***	.28***	-.13***
자기애합계	.31***	.30***	.44***	.25***	-.31***

** $p < .01$, ***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는 자기애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P, NP, A, FC는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A와 자기애와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P, NP 순이었다.

충동성과 부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FC와 충동성의 상관이 높았는데 FC는 충동성과 정적으로 관련성이 높았다.

논 의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와 충동성 검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NP와 A는 충동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CP, FC, AC와 충동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A가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Berne의 자아상태 이론을 분석하여 5개 하위요인 각각의 자아상태를 잘 드러내는 행동적 진단 단서를 정리하고, 이 단서들을 문항으로 구현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문항들을 3차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모

표 5. 자아상태 검사와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관계

	CP	NP	A	FC	AC
인지충동성	.03	-.16***	-.40***	.23***	.19***
운동충동성	.25***	-.18***	-.31***	.43***	.27***
무계획충동성	.03	-.23***	-.58***	.22***	.18***
충동성합계	.13***	-.24***	-.54***	.37***	.26***

*** $p < .001$

두 .80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화를 위하여 자기에 검사 및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C의 경우 1차 예비연구 결과 문항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Loffredo 외(2002)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FC에 속하는 문항과 CP에 속하는 문항이 가장 적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김진미(2006)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FC에 속하는 문항수가 다른 요인에 속하는 문항수에 비하여 가장 적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FC가 다른 요인들 특히 CP, NP, A와 중복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예비연구에서 FC에 포함되는 문항들 중에서 다른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을 삭제할 때 대부분의 FC 문항들이 삭제된 이유가 FC에 속하는 문항들이 FC만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CP, NP, A도 동시에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P의 경우에도 1차 연구에서 FC 다음으로 적은 문항이 남게 되었으며, 2차 연구결과에서는 가장 적은 문항이 남았다. 이러한 결과는 Loffredo 등(2002)의 연구에서 CP에 속하는 문항수가 가장 적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김진미의 연구에서도 CP에 속하는 문항수가 FC 다음으로 적었던 것과도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FC와 CP의 경우 자아상태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Berne이 측정하고자 하였던 CP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예비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3

차 예비검사와 최종 검사에서 5개의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offredo 외(2002)의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 문항들이 5개의 요인으로 잘 묶이지 않았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며, 김진미(2006), 송현중(1998), 이병래(1996), Loffredo 외(2004), 平石德己(2000)의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가 5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록 자아상태의 하위요인들이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잘 계획된 연구방법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충분히 측정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CP와 FC, NP와 A 간의 상관계수가 .30을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관계수들은 .30미만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 하위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Berne의 이론에 의하면 자아상태의 5개의 하위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존 연구들(권효진, 2006; 김경희, 김숙영, 2003; 김진미, 2006; 이각원, 2005; 이지영, 1998; 정정심, 2000; Loffredo et al., 2004)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들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재현(1990)이 개발한 청소년용 자아상태 검사를 사용한 연구들로는 기독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권효진(200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미애(1997), 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이지영(199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정심(2000)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서 연구대

상들의 각 개인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다르므로 자아상태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자아상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화가능하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아상태 프로파일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자아상태를 조사할 경우 5개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가 Berne(1961)이 제안한 자아상태의 5개의 하위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안정된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재현(1990)의 자아상태 검사를 사용한 김경희, 김숙영(2003)과 이각원(2005)의 연구를 보면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재현(1990)의 자아상태 검사를 사용한 권효진(2006), 정정심(2000)의 연구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 CP와 NP 간의 상관이 각각 .25, .34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김진미(2006)의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CP와 AC간의 상관이 .34를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기존에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가 Berne이 제안한 5개의 하위요인들 정확하게 측정하는 안정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에서 FC와 CP, FC와 A, FC와 NP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연구들과 크게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C와 CP 간의 상관이 .40으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FC와 CP는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표현되는 형태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CP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지만 FC는 자신에게 떠오른 감정을 그르치지 않고 바로 표현한다. 그러나 FC와 CP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FC와 CP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FC와 A간의 상관이 .01로 나타났다. 이것은 FC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한 FC는 부모의 규칙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던 아동기 시절의 행동을 재연하는 것으로 우리 개인 속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자발적 충동적 정서를 표현한다. 이에 비하여 A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각종 자극들을 수집한다. 이 자아는 조직적이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FC와 A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들 간에 관련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FC와 NP간의 상관이 .07로 나타났다. FC는 부모의 규칙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던 아동기 시절의 행동을 재연하는 것으로 우리 개인 속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자발적 충동적 정서를 표현하는 반면에 NP는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 어린이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머니와 같은 부분이다. 타인에 대해서 수용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남을 잘 돌보며, 친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FC와 NP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들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가 원래 Berne이 측정하고자 하였던 개념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Berne은 자아상태를 파악할 때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Berne은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내담자들을 상대하면서 내담자들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지만 (Stewart, 1989) 일반인들의 경우 Berne처럼 자신이나 타인들의 자아상태를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자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아상태 검사 개발관련 연구들은 요인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요인분석에 의하여 개발된 검사의 경우에도 타당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의 연구들은 요인분석에 의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것은 Berne이 권장한 것처럼 직관적으로만 자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되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로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신증 환자의 자아상태, 비행청소년의 자아상태, 성인 범죄자의

자아상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자아상태 등은 정상인의 자아상태와 다른 모양을 나타내므로(우재현, 2006; 杉田峰康, 1988; Dusay, 1977) 청소년들이 어떤 병을 앓는지 또는 어떤 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아상태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주로 사용하는지,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자신의 성격 중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과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부분을 파악하여 자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자아상태를 함께 조사해서 양쪽 자아상태의 유사점이나 상이점을 관찰하도록 하여 커플들이 서로 교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커플 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법 또한 모색할 수 있다(Dusay, 1977).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할 때 부산에 재직하는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설문을 실시할 때 연구대상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설문을 실시 할 경우 학생들이 설문지 문항에 응답을 할 때 비교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 했을 수 있다. 이러한 표집 방법과 설문 실시 방법으로 인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와 자기에 검사, 충동성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와 이들 두 가

지 검사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함을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인타당도를 확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한 검사 도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 타당화를 위하여 사용된 2가지 검사는 비록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은 있지만 유사한 검사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화 작업은 제한된 영역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가 타당한 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아상태 검사와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검사가 측정하는 구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할 때 1차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정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자아상태 검사의 하위요인 CP, NP, A, FC, AC의 개념이나 이들 구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행동이나 말, 생각, 감정 등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자아상태 검사의 구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아상태의 각 구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Berne이 제안한 각 요인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특성들을 문항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아상태 검사는 이론적인 면은 충

분히 고려되었지만 실제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덜 고려된 상태에서 개발된 검사이므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한 연구들을 보면, CP와 FC의 경우에 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요인분석 과정에 탈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에서 CP의 긍정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 예를 들어 ‘나는 규칙을 잘 지킨다.’와 같은 문항과, FC의 경우 ‘농담도 잘 하고 웃기는 행동도 자주 한다.’와 같은 문항이 제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 검사를 개발한 김진미(2006), 이병래(1996), 송현중(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해결하면서 자아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CP와 FC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를 각각 CP와 FC의 하위요인 처럼 생각하여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유임 (2002).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효진 (2006). 부모양육태도와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연구.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김숙영 (2003). 일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상호교류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4(2), 165-181.

- 김규수, 류태보 (1998). *교류분석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택 방법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미 (2006). 호텔종사원의 자아상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서미애 (1997). Ego-gram에 나타난 초등학교의 자아상태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송현중 (1998). 이고그램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논문집*: 13(1), 123-135, 여수대학교.
- 양명수 (1997). 말과 욕망: 욕망의 의미론(-리퀴르가 본 프로이트-). *기독교언어문화논집*, 1(1), 266-279.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재현 (1990). *자아상태실현의 열쇠*. 대구: 우신출판사.
- 우재현 (1992).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1994). *교류분석(TA) 체크리스트*.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03). *이고그램 243패턴*.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06). *교류분석(TA)에 의한 청소년 이성개발 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이각원 (2005).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아상태와 우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도영, 김남옥, 추석호, 이수연, 김규식 (2005). *교류분석: 이론과 실제-교류분석 훈련프로그램: 훈련자 매뉴얼-*.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병래 (1996). 자아상태 검사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 14-1-164.
- 이지영 (1998). Ego-gram에 나타난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과의 관계-간호사관생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6(2), 206-216.
- 이현수 (1992).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 정광하, 이정숙 (1999). 에고그램에 나타난 간호사의 자아상태와 인간관계와의 관계. *간호과학논집*, 4(1), 107-125.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5.
- 정정심 (2000). 일 지역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웅 (1986). TA상담을 통한 인간관계개선의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2002). *참 삶과 행복을 가꾸는 TA 심리학*.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吉内一浩; 山中學; 佐々木直 (2000). 新版TEGの開発. 交流分析研究(The Journal of Japan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25(2), 159-165.
- 吉内一浩, 堀江はるみ, 大島京子, 志村翠, 野村忍, 和田迪子, 俵里英子, 中尾睦宏, 久保木富房, 末松弘行 (1995). 東大式エゴグラム(TEG)第2版の臨床的有用性の検討: 他の心理テストとの関連. 心身医学, 35(7), 561-567.
- 大島京子, 堀江はるみ, 吉内一浩, 志村翠, 野村忍, 和田迪子, 俵里英子, 中尾睦宏, 久保木富房, 末松弘行 (1996). 東大式エゴグラム(TEG)第2版の臨床的应用: TEGパターン分析および多変量解析を用いた健康常者群と患者群の比較. 心身医学, 36(4), 315-324.
- 柏木繁男 (1999). 性格特性5因子論(FFM)による東大式エゴグラム(TEG)の評価. 心理學研究, 69(6), 468-477.
- 杉田峰康 (1988). 交流分析. 교류분석(1992). 김현수 역. 서울: 민지사.
- 杉田峰康 (1989). 臨床交流分析. 임상교류분석 (1993). 우재현 역. 대구: 정암서원.
- 佐々木直, 吉内一浩, 山中學, 野村忍, 久保木富房, 末松弘行 (1999). IID-2 新版TEG(仮称)開發の経緯(心理テストIII). 心身医学 39(supplement II), 124.
- 佐々木直, 吉内一浩, 山中學, 野村忍, 久保木富房, 末松弘行 (2000). IE-18 新版TEGの臨床的妥当性の検討(評価尺度). 心身医学, 40(supplement), 121.
- 平石徳己 (2000). TEGの測定次元の検討. 久留米信愛女學院短期大學研究紀要 27, 7-13.
- Barratt, E.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 191-198.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Grove Press.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Grove Press.
- Berne. E. (1966).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organization and groups*. Grove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measure of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ennan, T., & McClenaghan, J. C. (1978). The transactional behavior questionnair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8, 52-55.
- Bruno, F. J. (1983). *Adjustment and Personal Growth: Seven Pathways*(2nd Ed.), N. Y.: John Wiley & Sons.
- Campbell, W., Reeder, G., Sedikides, C., & Elliot, A.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3), 329-347.
- Dusay, J. M. (1972). Egograms and the "constancy hypothesi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3), 37-41.
- Dusay, M. 1. (1977). *Egogram: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 Y. Bantam Press. 이고그램 (1994). 우재현 역. 대구: 정암서원.
- Harris. T. A. (1975). *I'm OK-You're OK*. 인간관계개선과 치료 (1984). 이형득, 이성태 역.

-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r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offredo, D. A., Harrington, R., & Okech, A. P. (2002). Factor Analysis of the Ego State Questionnair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2(1), 25-27.
- Loffredo, D. A., Harrington, R., Munoz, M. K., & Knowles, L. R. (2004). The Ego State Questionnaire-Revised.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4(1), 90-95.
- Loffredo, D. & Omizo, M. M. (1997). Difference in ego states, locus of control, and dogmatism between Afr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Loffredo,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27, 168-174.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hodewalt, F., & Eddings, S. (2002). Narcissus Reflect: Memory Distortion in Response to Ego-Relevant Feedback among High-and Low-Narcissistic 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2), 97-116.
- Richards M. H., & Duckett, E. (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 Rogers, C. B.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tewart, I. (1989). *Transactional Analysis in A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교류분석(TA) 개인상담 (2006). 우재현 역. 대구: 정암서원.
- Stewart, I., & Joins. (1987).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Nottingham & Chapel Hill: Life space.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 Y.: W. W. Norton.
- Walter S., & Walters, L. H. (1980). Parent-child relationships: a review,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0-95.
- Williams, K. B., & Williams, J. E. (1980). The assessment of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s via the adjective checklis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20-129.

원 고 접 수 일 : 2008. 6. 2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9. 22
게 재 결 정 일 : 2008. 11. 1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 Scal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on-mo Park

Seong-moon Cheon

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go State Questionnair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measure the validity of the scale thus cre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3 steps: the first step consisted of developing preliminary questionnaires; the second step involved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self state inspection of the Ego State Questionnaire and the last step wa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the Ego State Questionnaire,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NPI and BIS. Through these steps, we were able to validate whether our survey of questions were applicable and releva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5 factor model was adequate for an ego state questionnaire because it had RMSEA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also showed that it's inter-item consistency(Cronbach α was relatively good). The Ego State Questionnaire develop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actional analysis. The results validated and legitimized the questionnaire, which, in turn, allowed the 5 factors of ego state originally proposed by Eric Berne to be used.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otential follow-up projects a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부록 1. 자아상태 기능별 특성

기능	성 질	말(언어)	태 도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통제적, 규제적 · 보수적, 봉건적, 권위적 · 편견적, 도덕적, 선악적 · 위압적, 단정적, 강압적 · 지배적, 도전적, 설교조 · 정의감, 문화, 전통, 습관을 전한다. · 비난적, 징벌적, 배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하세요! · 해서는 안 돼요! · 사람들은 무책임해서 안 돼! · 틀렸어, 소용없어, 당연하지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결코 ~해서는 안 된다. · 내가 말한 대로 해라. · 격언, 속담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장을 긴다. · 비난하는 얼굴모습 · 압력을 가하는 자세, 깔보는 자세 · 조소적, 깔본다, 잘난 척, 과도한 자신감, · 의심을 품는다. 타인을 이용한다. · 강압적인 말투 · 특별 취급을 요구한다.
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적, 보호적, 동정적 · 구호적, 지지적, 교육적 · 동정, 염려 · 도와줌, 배려, 돌봄, 위로 · 위안, 배려, 동정 · 따뜻한, 수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걱정된다. · 잘했어, 가엽게도~ · 나한테 맡겨 주세요. · ~ 이 마음에 걸려 · 염려 말아요.. · 불쌍히도 · 힘을 내세요.. · 걱정 마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어깨를 두드린다. · 포옹한다, 스킨십(skinship) · 부드러운, 온화한 태도, 다정하다 · 애정이 깃들어 있는 모습 · 기분을 알아주는, 응석을 받아준다. · 상대를 돌보다, 과보호적 태도 ·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인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 과학적, 객관적, 능률적 · 사실평가적, 현실지향 · 정보수집 지향, 확률적 · 설명적, 사실중심주의적 · 지성적, 분석적 · 관찰적, 기계적, 타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보자. ·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자 · 통계자료에 의하면 · 6하원칙(5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는 겁니다. · 생각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자세 · 안정된 기분, 침착한 목소리 · 무감정적이고 냉담함 · 주의 깊게 듣는다. · 상대방의 눈과 마주친다, 대등한 태도 · 단조로움, 일정한 음조(호트리지지 없음) · 차분한, 냉정한
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능적, 자발적, 자동적 · 직관적, 창조적, 적극적, 충동적, 향락적 · 행동적, 반항적, 반동적 · 자기중심적 · 감정적, 공상적, 호기심 · 개방적, 자유,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 카!, 감탄사, 아하 체험(experience), 유패하다. · 좋아해, 멋있네 · 그 따위 일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 갖고 싶다 · 해줘요, 못해요, 기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광을 부림 · 희로애락의 직접적 표현 · 밝고 명랑하며, 큰 소리로 말함, · 자유스런 행동과 감정표현 · 감정적, 쉽게 흥분하는, 장난꾸러기. · 밝은, 티 없는, 활발한, 즐거운. · 낙관적, 공상적, 유머가 풍부하다.
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적, 소극적, 폐쇄적 · 감정억압적, 비대결적 · 자기연민적, 걱정, 순종 · 신중, 고분고분, 착한 아이 · 의존적, 타율적, 자학적 · 소극적, 감정 억제 · 반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도 괜찮을까요? · ~할 수 없습니다. · 어차피 저 따위는~ · 저 같은 사람이... ·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 · 슬프다, 우울하다. · 쓸쓸하다, 분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을 억압. · 의존적 태도, 동정을 구한다. · 중얼거리는 목소리. · 불안, 공포, 증오, 때로는 격분. · 조심스럽다, 애처롭다. · 한스럽다, 침울하다. · 자신이 없다, 남의 표정을 살피는 태도..

CP: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들이 했던 방법을 모방하여 남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NP: 어린이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머니 같은 부분으로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한다.

A: 프로이드의 에고(ego)와 같이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 자료처리,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FC: 아동기 시절의 행동을 재연하는 것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발적 충동적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AC: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억압하고,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기능한다.

부록 3. 최종 선정된 문항

연번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	A2	32.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본 후 어떤 일을 시작한다.	.69	-.09	-.10	-.25	-.10
2	A12	4.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변 상황을 잘 관찰하고 분석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68	-.03	-.12	-.31	-.09
3	A6	36.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64	.09	-.02	-.22	-.18
4	A7	37. 통계자료나 확인된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58	.03	-.02	-.18	-.29
5	A4	34. 말이나 행동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다.	.57	-.10	-.12	-.22	-.10
6	A11	3.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54	.05	-.14	-.22	-.06
7	A3	33. 공부나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다.	.53	-.02	-.21	-.25	-.04
8	A5	35. 나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0	.04	-.07	-.26	-.12
9	A14	6.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고로 한다.	.46	.03	-.04	-.30	.01
10	A8	38. 증거가 없는 말은 믿기 어렵다.	.45	.07	.11	-.04	-.14
11	FC4	11. 말이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다.	-.09	.70	.10	.02	-.31
12	FC1	8.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	.00	.67	.07	-.06	-.18
13	FC9	16. 나의 감정과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01	.64	.13	-.10	-.21
14	FC3	10.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낸다.	.03	.64	.00	-.10	-.22
15	FC13	20. 기분이 좋다가도 사소한 일에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	.00	.53	.12	.02	-.30
16	FC10	17.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참이 어렵다.	.05	.51	.07	-.03	-.24
17	FC2	9. 기분이 좋으면 정도가 지나쳐서 실수를 자주 한다.	.00	.50	.18	-.08	-.24
18	FC5	12.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한다.	.21	.44	.04	.00	-.24
19	FC8	15.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04	.39	.17	.06	-.15
20	FC11	18. 내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재미가 없으면 해내기 어렵다.	-.08	.39	.22	.03	-.15
21	AC6	28.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자신이 없다.	-.12	.05	.77	.06	-.03
22	AC7	29.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10	.07	.74	.08	-.03
23	AC5	27. 매사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05	.05	.72	-.03	.00
24	AC1	23.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13	.07	.66	.07	.10
25	AC11	33.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08	.22	.62	.00	-.07
26	AC2	24.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05	.18	.61	-.01	-.08
27	AC10	32.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는다.	-.03	.12	.56	.00	-.11
28	AC4	26.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12	.12	.56	-.01	.02
29	AC14	36. 친구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윗사람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든다.	-.07	.09	.47	.07	-.13
30	AC15	37.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반항하는 일이 자주 있다.	.01	.25	.44	-.02	-.16

부록 3. 최종 선정된 문항

(계속)

연번	요인	문 항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31	NP6	21.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28	.05	-.04	-.70	-.09
32	NP3	18.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동정심이 많다.	.26	.05	-.02	-.69	-.01
33	NP8	23.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	.25	.05	-.11	-.67	-.07
34	NP7	22.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봉사하는 일을 좋아한다.	.22	.00	-.04	-.67	-.07
35	NP15	30. 인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22	.01	-.09	-.60	.02
36	NP4	19.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해 준다.	.22	.02	.04	-.56	.11
37	NP9	24.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준다.	.29	-.10	.09	-.54	.11
38	NP2	17. 다른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친절히 안내해 준다.	.28	.04	-.11	-.52	.04
39	NP5	20. 의리와 인정에 끌려서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15	.25	.16	-.43	-.16
40	NP13	28. 내 물건을 친구들에게 잘 빌려준다.	.14	.03	-.01	-.42	.15
41	CP6	6.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지적한다.	.06	.20	.11	-.05	-.67
42	CP4	4.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19	.25	.06	.02	-.61
43	CP7	7. 친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쉽게 화를 낸다.	.05	.31	.06	.03	-.59
44	CP2	2.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하거나 간섭을 많이 한다.	.10	.24	.01	-.05	-.58
45	CP5	5. 다른 사람이 실수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꼭 이것을 지적한다.	.16	.24	-.02	.01	-.55
46	CP13	13. 친구나 동생들을 가르치려 한다.	.18	.23	.10	-.14	-.52
47	CP1	1. 친구나 가족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기를 좋아한다.	.14	.23	-.08	.01	-.52
48	CP3	3.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잘 보인다.	.10	.24	.22	.18	-.52
49	CP8	8. 어떤 일이든지 대체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05	.25	.29	.19	-.47
50	CP10	10.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끝까지 내 의견을 주장한다.	.21	.22	-.04	.09	-.47
설명변량			12.14	11.64	8.20	5.82	4.05
요인명			A	FC	AC	NP	CP